

## [열려라도서관\_시즌2] 공통6. 정보원 활용(인쇄자료)

### (1) 단행본

한 권 한 권을 단독으로 출판하는 책을 말합니다. 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출판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잡지나 신문에 비해 최신정보를 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하기 편리하고 소장하기 편리하며 자료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 (2) 도감

여러분이 만약에 ‘빨강머리 앤’ 책을 읽다가 다이애나가 이름을 지었다는 자작나무 길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책이나 인터넷을 찾으면 되는데 자작나무의 생김새를 자세히 보려면 도감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도감의 도는 그림도, 감은 거울감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림이 거울처럼 그려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림이 자세히 나와 있겠어요?



도감은 그림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종류는 동물도감, 식물도감, 풀도감, 나무도감, 곤충도감, 물고기도감, 강아지도감, 우리민속도감, 살림살이도감, 농기구도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감을 이용하면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보기 | 도토리 ▶ 참나무 304 : 도토리는 304쪽에 있는 참나무 항목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땅이굴기 ▶ 32, 126 : 땅이굴기라는 낱말은 32쪽이나 126쪽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뽕나무 260 : 뽕나무 항목은 260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illegible][illegible]

바로 책의 맨 뒤에 실려 있는 찾아보기(색인)을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기는 가나다순으로 되어있어 ‘ㅈ’에서 ‘자작나무’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식물도감에 자작나무가 없을 땐 다른 식물도감을 찾아보거나 더 자세한 나무도감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찾고자 하는 이름을 잘 모를 경우는 책의 앞에 나와 있는 차례(목차)를 이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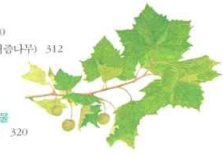
차레		꿀벌들이 먹는 식물	제비들이 먹는 식물
일리 두기 6	박 68	개나리 144	가래 146
선생님과 부모님께 7	배나무 70	국화 148	꽃말 150
미리글 9	배추 72	나팔꽃 152	맨드라미 154
명 목에 있는 꽃리 10	바질 74	목련 156	무궁화 158
식물의 줄기 12	바나 76	백일홍 160	봉숭아(봉숭화) 162
가치 가지의 생장 14	박은 아랑게 길리호 78	문초 164	사철나무 166
아름다운 꽃 18	보리 80	산철나무 168	수국 170
아름답게 색인 20	복숭아(복숭나무) 82	수선화 172	수세미(수세이오미) 174
식물의 겨울나기 22	부추 84	잔디 176	강미 178
	사라나무 86	제충초 180	죽매나무 182
	삼국 88	코스모스 184	플류 186
	삼국 90	해바라기 188	제충초 190
	생강 92	하이라시 192	
<b>논밭에서 기르는 식물</b>	수박 94		
수우리가 먹는 곡식과 채소와	시금치 98		
과일 26	옥잠 100		
가지 28	양배추 102		
감나무 30	알과 104		
가지 32	이오 106		
자 34	옥수수 108		
강낭콩 36	완두 110		
고추와 38	우렁 112		
고추 40	임심 114		
관나무 42	자두나무 116		
녹두 44	조 118		
약초 46	완재 120		
대추나무 48	완지 122		
도라지 50			
완재 52			
딸기 54			
망고 56			
마늘 58			
매밀 60			
부 62			
마리나 64			
밀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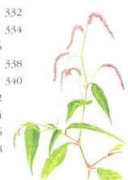
사과 등에서 자라는 식물  
 열매가 많은 풀과 나무 196  
 강아지풀 198  
 겨우살이 200  
 고사리 202  
 꿩이밥 204  
 꽃다지 206  
 들꽃 208

나비(일출봉원갑나비류) 210	오리나무 282
내이 212	오이를 284
노각주나무 214	은행나무 286
노리나무 216	익모초 288
단풍나무 218	갯나무 290
달개비[담배장꽃] 220	간나루 292
대나무 222	계몽미 294
디덕 224	죽목 296
도깨비바늘 226	진달래 298
도꼬마리 228	질경이 300
동해나무 230	헬레 302
대문초 232	참나무 304
미루 234	쥬 306
매꽃 236	도끼골 308
명아주 238	패랭이꽃 310
미나리아재비 240	갈매나무(메갈나무) 312
미꾸라지(미꾸라지나무) 242	한티꽃 314
민들레 244	향나무 316
파랭이 246	
팔나무 248	
벌말피 250	
비드나무 252	
갯나무 254	
꽃토 256	
비름 258	
쭈나무 260	
소나무 262	
프리지아 264	
쇠뿔물 266	
꽃 268	
몸바키 270	
야기나무나무 272	
애기똥풀 274	
억새 276	
영결초 278	
오동나무 280	

물에서 사는 식물  
 물줄기 사슴 320  
 간대 322  
 개구리죽 324  
 진달래 326  
 나사막 328  
 물을 330  
 뽕나무에 332  
 땅중사니 334  
 나무 336  
 부채옥잠 338  
 봉어나무 340  
 수련 342  
 여위 344  
 연꽃 346  
 이끼 348  
 파 350



물에서 사는 식물  
물풀이 사는 곳 320



해감 352  
바닷속에서 사는 식물  
바닷속에서 사는 식물 354  
김 356  
다시마 358  
미역 360  
우뚝가자리 362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364  
찾아보기 366



### (3) 사전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을 때는 사전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사전은 여러 가지 사항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설명한 책으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발음, 용법, 비슷한 말과 반대말, 어원 등을 찾을 때도 유용한 정보원입니다. 사전의 종류는 국어사전, 영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 낱말의 짜임새를 볼까요? 낱말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은 한 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아버지'는 세 글자로 된 낱말인데, '아'가 첫째 글자, '버'가 둘째 글자, '지'가 셋째 글자입니다. 낱자마다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자를 보면, 'ㅁ'이 첫소리, 'ㄴ'은 가운데소리, 'ㄹ'은 끝소리입니다.

[illegible]

#### (4) 백과사전

이 자료는 백과사전에 실린 나폴레옹에 관한 부분입니다. 백과사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도표, 지도, 그림 등을 덧붙이기도 하고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백과사전은 온갖 사실들에 관한 정보를 자모순이나 주제별로 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식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인쇄자료입니다.

백과사전은 정보를 찾고 싶거나, 과제를 준비할 때 원하는 정보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주제의 전문가들이 정확하다고 판단한 정보들을 편집하여 넣었기 때문에 인터넷 자료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성리학자 중 한명을 선정해서 조사해오기”라는 숙제를 냈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성리학자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이럴 때 백과사전에서 성리학자 또는 성리학을 찾아보면 성리학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 (5) 신문, 잡지

신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기사, 사진, 그림, 만화, 광고 등이 있습니다. 기사는 글로 된 부분을 말하며 크게 제목과 본문으로 나뉩니다. 기사의 첫머리를 일컫는 말로 리드(lead)가 있습니다. 리드는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요점 정리되는 부분이지요 짧은 기사의 경우 주로 첫문장이 이에 해당되며 긴 기사의 경우는 글씨체를 달리하여 본문이 시작되기 전 따로 문단을 구성해 실리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를 쓴 취재기사 혹은 사진을 찍은 사진기사의 이름이 적힌부분을 바이라인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말그대로 사진이 실린부분으로 기사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쓰인 사진이 있고 기사와는 상관없이 사진만으로 기사를 대신한 것도 있습니다. 그림역시 기사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쓰입니다. 시작적으로 정리해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한눈에 볼수있게 합니다. 시사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그림인 만화(만평)이 있고 신문지면의 40%를 차지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기사의 종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자의 주관에 개입하지 않고 보도하는 보도기사, 사건의 배경이나 원인, 파장, 앞으로의 전망들을 깊이있게 보도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 해설기사, 사설이나 칼럼, 영화평, 서평, 독자투고등의 의견기사, 인터뷰가 있습니다.

카인즈 [www.kinds.or.kr](http://www.kinds.or.kr)에서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모든 신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잡지는 특정 제호(題號) 아래 다양한 기사를 담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잡지의 특징은 정기적으로 계속 간행되며 넓은 분야의 최신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출판시기에 따라 주간, 격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잡지에서 정보를 탐색할 때 첫째, 찾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어나 핵심어를 찾습니다. 둘째, 주제에 해당되는 잡지를 찾습니다. 셋째, 잡지의 목차를 보고 관련이 있는 제목을 찾습니다. 잡지의 표지에는 중요한 기사의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